

#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구조적 관계 - S대학교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정\* · 송영수\*

한양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이 개인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학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특성 요인으로서의 셀프리더십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지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과정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소재 4년제 S 사립대학교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71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개념타당도를 확인하고, 구조모형방정식, 부트스트랩, 소벨 테스트를 통해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 특성 변수인 셀프리더십 및 사회 환경적 변수인 사회적지지와 대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학업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적인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선행 변수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지니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하여 학업적인 성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 특성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학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학문적,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대학생 학업성취

1) 교신저자: 송영수(young2020@hanyang.ac.kr)

2) 본 논문은 이은정(2017)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7년 우리나라의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은 68.9%로(교육부, 2018) 한국의 대학 교육은 이미 대중화를 넘어서 대학 정원이 미달될 것을 염려하는 양적 팽창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대학도 특성화, 자율 전공학부 신설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인재 양성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대학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 대학 생활 등 학업에서의 다양성을 담보해주었지만, 이와 동시에 학생들 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개인에게 있어 학업적인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중요한 성취경험으로서 자신감 증대, 동기증진으로 이어지기에" (이지은, 2015, p.2164) 학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성취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하는 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에 의하면, 청년기는 개인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는 시기로서, 향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Erickson, 1969).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획일화 된 교육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 자율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을 지속하게 하고 대학교육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신혜숙·최정운, 2013) 대학에서의 학업 완수를 위해서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Tinto, 1993).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은 학업 지속 및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박현숙·정정순, 2013; 이숙정, 2011).

Bandura(1987)는 인간행동이 행동, 인지, 환경 요인을 수반하는 상호결정론에 기인하고 있으며, 개인이 나타내는 행동의 특성과 변화는 내적과정과 환경적 영향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환경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노안영·강영신, 2003)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이 학업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개인 내적인 특성과 사회 환경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 변수와 사회 환경적 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능, 경제적 환경 등과 같이 고정되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요인들 보다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한 요인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로는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을 선정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의 과업을 확인하고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는 내재적 탐구과정으로(Manz & Sims, 1991)으로 셀프리더십을 갖춘 인재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송영수, 2011). 셀프리더십은 학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 전환을

통해 자라날 수 있기에(Bannan, 2004), 대학에서의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생들은 미래 진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융통성 있고 독창적으로 대학 재학 중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정은이, 2013, p. 162) 하기에 “대학생에게는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생활태도가 요구되는데,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의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리더십”(이정선·김경아, 2012, p. 21)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인 변수로는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살펴보고자 한다. Dong & Simon(2010)은 사회적지지를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위한 타인의 지원, 도움, 격려 형태의 사회적 상호관계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욕구가 발생하거나 충족”(김연숙·김지미, 2011, p. 163) 되므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지현 외, 2011). 하지만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최인선·주은지,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발달 단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활을 대학생이 독립된 성인으로 잘 적응하고 나아가 학업적인 성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특성 요인으로서의 셀프리더십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사회적지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과정에서의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지원해주는 대학차원에서의 제도 마련 및 교육 제공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영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연구가설 3.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연구가설 4.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가설 4-1.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셀프리더십과 학업성취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가설 4-2.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의 관계 및 연구동향

셀프리더십의 시작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조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근로자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연구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Self Management)의 확장개념에서 출발하여 80년대 중반 Manz에 의해 처음 소개”(송정수·양필석, 2008, p. 190) 되었다. 셀프리더십은 “등장 초기에는 스스로 동기부여하기 위한 자신의 영향력 행사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 및 인지적 활동, 자기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고 및 행동전략으로 그 개념이 발전”(양수진·신다혜·송영수, 2015, p. 242) 하게 되었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발전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통계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강조되는 교육 환경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능동적 행동으로 자신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최인선·주은지, 2016, p. 152) 을 뜻한다. 즉, 대학의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특성을 셀프리더(Self Leader)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Kerr & Jermier, 1978, p. 114)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훈련을 통해 배양이 가능한 역량으로, 향후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는 대학생 시기는 셀프리더십을 키우는데 있어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김미경, 2012; 김경화, 201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주관적 안녕(정은이, 2010), 문제해결력(정선영·김진영, 2012), 교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최석봉·임명서, 2012),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김진영, 2013),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조현재, 201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셀프리더십과 학업 성과 관련 변수와의 영향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외향성, 성실함, 안정성 등의 성격 변수(Houghton et al., 2004), 주도성 및 목표 설정과 실천(정태희, 2005), 학업만족도 및 학습성과(최석봉·임명서, 2011), 자기효능감과 목표몰입(허갑수·변상우, 2012), 감성지능과 진로준비행동(양수진·송영수, 2015), 자기주도 학습력(이유정·정기수, 2018)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셀프리더십이 높은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를 이루어 낼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 2.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 및 연구 동향

한국교육심리학회(2000)의 교육 심리학 용어사전에서 명시한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지지만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완시켜주는 행위로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수없이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 사회적 무형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전소연, 2010, p. 94) 하였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단순히 환경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과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Bandura, 1987),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연계망이 제공하는 지지를 의미하는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치열했던 입학 경쟁 후 오는 상실감, 새로운 학습 방법에 대한 낯설음, 진로 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많은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 심리적 요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김지현, 2013; 송진열, 2017; 한동협·김희순·장성화, 2018),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교수의 지지(김성경, 2003)와 교수신뢰(류운석, 2012)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밝혀진 바 있다.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사회적지지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밝혀졌으며(Heiman, 2007; 전소연, 2010; 김경주·김기홍·박경선, 2012), Phan(2012)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타자에 의한 피드백과 학생의 학업성취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추해보자면, 사회적지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노출되는 대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 3.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및 연구 동향

개인은 적응의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환경과 개인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높은 삶의 만족도를 누리게 되며, 사회의 규범에 합치되게 행동할 수 있게된다(Schaffer, 1956). “학교 적응은 단순하고 소극적인 의미의 적응을 넘어서 미래상황을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내포”(최임숙, 2007, p. 548) 하기에,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요구인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일 것 이라고 예측이 가능하다.

학업성취는 한국인의 성취인식에 관한 연구(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2)에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에 대한 질문에 최다 응답으로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생의 학업성취는 “대학 교육을 통하여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관 등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얼

마나 잘 이수하였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영희·이영미·김동기, 2009, p. 180)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학업성취는 “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 직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곽수란, 2012, p. 2) 하기 때문에, 대학은 대학생이 주어진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여 학업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 적응은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신현대·이정기, 2008, p. 200)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부적응은 “학업동기를 비롯하여, 학습준비, 학업지속성, 학교 출석 및 학업성취 등에서의 부적응”(Spencer, 1999, p. 43)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생활적응과 학업성취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생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예측변수(김현철, 2005; 이수진, 2011; 유경훈, 2013; 이경화·유경훈·김은경, 2013)임이 밝혀졌으며, 군 제대 복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복학 후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대학생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해림 외, 2015). 대학생생활적응은 “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대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의미”(위유라·노충래, 2014, p. 204) 한다. 즉, 대학생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은 자신의 내적, 외적 요인을 잘 조화시켜 주어진 교육 목표인 학업성취를 이루어 낼 것이라 유추가 가능하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S 사립대학교 재학생 중 객관적인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편의표집하여 진행하였다. 총 32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미완성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271부(채택율 83%)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구분 값	빈도(명)	비율(%)
성별	남	91	33.6
	여	180	66.4
학년	2학년	80	29.6
	3학년	86	31.7
	4학년	105	38.7

<표 계속>

구분	구분 값	빈도(명)	비율(%)
전공	인문계	50	18.5
	사회계	110	40.6
	이공계	111	41.0
평균평점	2.0 이하	15	5.5
	2.0 초과~3.0 이하	82	30.3
	3.0 초과~3.5 이하	97	35.8
	3.5 초과~4.0 이하	59	21.8
	4.5 초과	18	6.6
총계		271	100.0

## 2. 측정도구

### 가.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Manz & Neck(1998)의 셀프리더십 측정 도구를 김민정(2007)이 번안하여 평생교육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셀프리더십을 각각 15문항으로 이루어진 행동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검증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하위 요인은 .88~.90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 전체는 .94로 나타났다.

〈표 III-2〉 셀프리더십 하위요소 및 문항구성

구성요소	내용	문항수	$\alpha$
행동적 전략	행동의 목적을 스스로 인식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억제하여 성공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는 전략	15	.90
인지적 전략	해야하는 일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전략	15	.88
셀프리더십		30	.94

### 나.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ohen & Hoberman(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지지평가척도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근거로 수정·보완한(옥경희, 2001) 설문지의 내용을 재구성한 이경림, 박재국(2007)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총 네 가지의 하위영역이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검증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하위요인은 .82~.8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표 III-3> 사회적지지 하위요소 및 문항구성**

구성요소	내용	문항수	$\alpha$
물질적 지지	과업을 대신해주거나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행위	5	.82
정서적 지지	관심, 존경, 애정, 신뢰 경험 등의 행위	5	.85
정보적 지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86
평가적 지지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5	.85
사회적지지		20	.95

#### 다.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정은이와 박용한(2009)이 문항을 제작하여 교육심리 전문가의 검증 등을 통해 내용 타당화 과정을 거치고 대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검증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하위척도는 .77~.86이었으며, 대학생활적응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표 III-4> 대학생활적응 하위요소 및 문항구성**

구성요소	내용	문항수	$\alpha$
대인관계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인간적인 교류를 함	4	.78
학업활동	학업에 충실하고 전공관련 공부를 열심히 함	4	.85
진로준비	자신의 진로를 위해 시간계획을 잘 세워 적극적으로 준비함	4	.86
개인심리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함	4	.80
사회체험	교내외에서 여러 단체 및 조직에 참가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을 함	3	.77
대학생활적응		19	.92

#### 라. 학업성취

박원우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각 변수를 독립적인 응답원천으로 측정하는 것은 동일방법편의의 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의 측정을 자기보고식이 아닌 연구대상자의 사전 동의하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평점평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업성취는 연구대상자들의 학기 별 평점평균의 입학 이후부터 누적 평균치(4.5점 만점 기준)로 측정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AMOS 21.0을 사



용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관측변수 사이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수와 공차한계를 조사하였다. 셋째, 잠재변수의 관측변수에 의한 측정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구성개념타당도를 측정하였다. 넷째,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관측 변수의 일반적 특성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사용할 관측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IV-1>과 같다. 관측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전체 평균은 3.47(SD .57), 2개 관측변수의 평균은 3.47~3.48(SD .59~.6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의 전체 평균은 3.57(SD .67)이었으며, 4개 관측변수의 평균은 3.50~3.66(SD .68~.75)이었다. 대학생활적응의 전체 평균은 3.14(SD .70)이고, 5개 관측변수의 평균은 2.64~3.50(SD .78~.93)으로 나타났다. 단일관측변수로 구성된 학업성취의 평균은 3.16(SD .61)이었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하인 경우 측정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위해하지 않는다(Kline,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왜도는 -.76~.26의 분포였고, 첨도는 -.51~.99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IV-1> 관측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71)						
구성요소	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잠재변수평균(SD)
셀프 리더십	행동적 전략	3.48	.62	.05	.34	3.47(.57)
	인지적 전략	3.47	.59	.10	.42	
사회적 지지	물질적지지	3.66	.68	-.08	-.09	3.57(.67)
	정서적지지	3.54	.73	.15	-.27	
	정보적지지	3.57	.73	-.21	-.51	
	평가적지지	3.50	.75	.26	-.46	
대학생활 적응	대인관계	3.06	.81	-.30	.03	3.14(.70)
	학업활동	3.41	.91	-.23	-.51	
	진로준비	2.64	.93	.14	-.30	
	개인심리	3.50	.78	-.24	-.22	
	사회체험	3.06	.93	-.02	-.32	
학업성취	총학점	3.16	.61	-.76	.99	3.16(.61)

## 2. 변수 간 상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사용할 관측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상관행렬은 모형 내의 계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인과관계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적절하다(배병렬, 2014). 관측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모든 관측 변수들 간의 상관이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표 IV-2> 관측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업성취	1	1											
	2	.78**	1										
셀프리더십	3	.75**	.77**	1									
	4	.74**	.59**	.57**	1								
사회적지지	5	.76**	.62**	.62**	.79**	1							
	6	.74**	.60**	.58**	.81**	.83**	1						
	7	.73**	.61**	.59**	.73**	.85**	.82**	1					
대학생활적응	8	.55**	.42**	.44**	.48**	.52**	.47**	.49**	1				
	9	.84**	.67**	.65**	.71**	.70**	.71**	.70**	.56**	1			
	10	.60**	.54**	.53**	.44**	.50**	.48**	.49**	.41**	.60**	1		
	11	.63**	.53**	.46**	.51**	.57**	.54**	.58**	.47**	.66**	.59**	1	
	12	.62**	.49**	.50**	.51**	.53**	.51**	.54**	.50**	.63**	.51**	.56**	1

1. 평점평균, 2. 행동적 권략, 3. 인지적 권략, 4. 물질적지지, 5. 경서적지지, 6. 정보적지지, 7. 평가적지지, 8. 대인관계, 9. 학업활동, 10. 진로준비, 11. 개인심리, 12. 사회체험

\*\*  $p < .01$

## 3. 다중공선성 검토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의 내적 영향관계가 높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로,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dex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 limit: TOL) 확인을 통해 검토가 가능하며, 분산팽창지수가 10미만, 공차한계가 .1이상이면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노경섭, 2014).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고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IV-3>과 같이 다중공선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 IV-3> 관측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다중공선성 통계량	
		TOL	VIF
셀프리더십	행동적 전략	.340	2.938
	인지적 전략	.363	2.754
사회적지지	물질적지지	.280	3.573
	정서적지지	.193	5.179
	정보적지지	.220	4.550
	평가적지지	.223	4.484
대학생활적응	대인관계	.619	1.617
	학업활동	.269	3.712
	진로준비	.535	1.869
	개인심리	.449	2.227
	사회체험	.524	1.910

#### 4. 측정모형 적합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이 측정도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수는  $\chi^2$ (CMIN), 자유도(df), *p-value*, GFI, CFI, NFI, TLI(NNFI), RMR, RMSEA 등이다(Hair et al., 1998).  $\chi^2$ (CMIN)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절대적합지수로서,  $\chi^2$ (CMIN)과 자유도(df)의 비율이 3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우종필, 2012). RMR(Room Mean Squared Residual)은 표본분산 행렬과 모델추정 공분산 행렬 간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의 대한 수치로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가 되며 .05이하이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차항에 대한 적합도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이하이면 양호하며, 그 외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여러 지표들(GFI, CFI, NFI, TLI(NNFI))의 수치는 .8대 후반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Bagozzi & Yi., 2012).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IV-4>과 같으며,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64.46$ ,  $df=41$ ,  $\chi^2/df=1.57$ , GFI=.96, CFI=.99, NFI=.97, TLI(NNFI)=.99, RMR=.02, RMSEA=.0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p	$\chi^2/df$	GFI	CFI	NFI	TLI	RMR	RMSEA
64.46	41	.01	1.57	.96	.99	.97	.99	.02	.05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뜻하며, AVE(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를 통해 검증 가능하다. AVE가 .5가 넘을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 가능하며,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7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집중타당도 검증 지표 값은 아래 <표 IV-5>와 같으며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 검증

잠재 변수	관측변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셀프 리더십	행동적 전략	1.099	.857	.065	16.901	.90	.95
	인지적 전략	1.000	.893	-	-		
사회적 지지	물질적지지	.864	.901	.042	20.502	.89	.97
	정서적지지	.989	.906	.040	24.71		
	정보적지지	.977	.925	.042	23.486		
	평가적지지	1.000	.856	-	-		
대학 생활 적응	대인관계	.825	.711	.078	9.919	.62	.89
	학업활동	1.246	.758	.089	14.019		
	진로준비	.967	.688	.089	10.807		
	개인심리	.898	.904	.076	11.892		
	사회체험	1.000	.631	-	-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 간 구별되는 정도에 따라 구성개념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두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Hooper, Coughlan & Mullen, 2008). 측정모형의 수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와 같으며 모든 변수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IV-6>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

잠재변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AVE=.90		
사회적지지	.07***	AVE=.89	
대학생활적응	.08***	.14***	AVE=.62

\*\*\*  $p < .001$ ,  $r(\text{상관계수}) = r^2$

### 5.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Bandura(1987)의 상호결정론 이론의 맥락에서 종합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내적 요인인 셀프리더십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 자원인 외적 요인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지각하고

있는 대학생은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여 학업 성취를 이룰것이라 유추하였으며,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GFI, AGFI, RMSEA,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인 NFI, IFI, TLI, CFI, 마지막으로 모형의 간명도와 관련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PNFI, PCFI를 살펴보았다. 구조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과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IV-7>과 같으며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구조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 구조모형 적합도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GFI	>.90	.954	적합
	AGFI	>.85	.927	적합
	RMSEA	<.10	.045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90	.973	적합
	IFI	>.90	.990	적합
	TLI	>.90	.987	적합
	CFI	>.90	.990	적합
간명적합지수	PNFI	>.50, .60	.723	적합
	PCFI	>.50, .60	.735	적합

## 6. 연구 가설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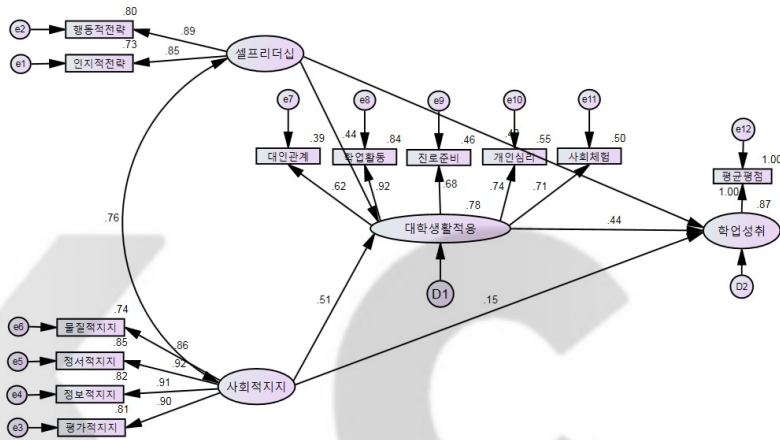
구조모형의 각 잠재변수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잠재변수 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셀프리더십 → 대학생활적응	.438	.438	.078	5.606	***
셀프리더십 → 학업성취	.485	.404	.076	6.348	***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379	.507	.058	6.476	***
사회적지지 → 학업성취	.134	.149	.053	2.531	.011
대학생활적응 → 학업성취	.524	.437	.099	5.282	***

\*\*\*  $p < .001$

연구가설 1을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 $\beta=.438$ , C.R.=5.606,  $p<.05$ )과 학업성취( $\beta=.404$ , C.R.=6.348,  $p<.05$ )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가설 1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 $\beta=.507$ , C.R.=6.476,  $p<.05$ )과 학업성취( $\beta=.149$ , C.R.=2.531,  $p<.05$ )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활적응 역시 학업성취( $\beta=.437$ , C.R.=5.282,  $p<.05$ )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가설2와 영가설3 역시 기각되었다. 표준화 경로계수를 포함한 모형은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구조모형의 각 변수들 간의 경로의 의미와 구체적인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과 같다. 매개효과 분석은 효과분해 (Effect Decomposition)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판단한다(우종필, 2012).

<표 IV-9>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셀프리더십 → 대학생활적응 → 학업성취	셀프리더십→대학생활적응	.438**	-	.438**
	대학생활적응→학업성취	.437**	-	.437**
	셀프리더십→학업성취	.404**	.114**	.595**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 학업성취	사회적지지→대학생활적응	.507**	-	.507**
	대학생활적응→학업성취	.437**	-	.437**
	사회적지지→학업성취	.149*	.132**	.371**

\*\*  $p<.01$ , \*  $p<.05$

가설 4-1을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114( $p<.05$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학업성취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져 영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가설 4-2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132(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유의미함도 검증되어 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 되어 영가설 4-2 역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매개효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경로	Z	SE	p
셀프리더십→대학생활적응→학업성취	3.852	.078	<.001
사회적지지→대학생활적응→학업성취	4.113	.058	

소벨테스트는 95%수준에서 Z값의 절대값이 1.96을 초과할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이 가능한데(Preacher & Hayes, 2004),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 특성 변수인 셀프리더십 및 사회 환경적 변수인 사회적지지와 대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학업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선행 변수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와 학업성취 사이에 매개효과를 지니는 주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가 학업적인 성과 달성으로까지 연계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생애 발달 단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아 적극적인 역할 탐색이 요구되는 대학생들이 입학 후 마주하게 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무사히 적응하여 학업적인 성취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는데 학문적, 실무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대학생이 낯선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셀프리더십

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는 상호 영향적인 특성을 지녔으며(Robinson, 2005),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다(Dong & Simon, 2010). 즉,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는 주변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보유정도가 고정적이지 않고 상담 훈련 등을 통해 배양이 가능하며 사용을 해도 고갈되지 않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지닌 이러한 확산적인 특성의 발현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지원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담 및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은 개별적인 상담 혹은 가이드 제공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지닌 상호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동료, 선후배 등 다양한 형태의 대인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및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인 셀프리더십과 사회 환경적 변수인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 외에도 개인의 특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대표하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더욱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학교인 S대학교에 한정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지와 설립형태의 대학으로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 연구 결과의 보편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측변수들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학년, 전공, 성별 등의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는 보유정도의 성장이 가능하고 상호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을 시행하였을 때 그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후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를 지원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닌 셀프리더십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중단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기여하는 개인특성요인인 셀프리더십과 사회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지지가 지닌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위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8). **2017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교육부: <http://kess.kedi.re.kr/indes>에서 검색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2017년 OECD 교육지표**. 교육부: <http://kess.kedi.re.kr/indes>에서 검색
- 곽수란(2012). 학업성취, 교사기대 그리고 학업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 1-24.
- 김경주·김기홍·박경선(2012). 독립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17(2): 1-25.
- 김경화(2013).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취업전략 간의 관계 및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0(10): 369-390.
- 김미경(2012). 셀프리더십 척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한국 HRD 연구**, 7: 21-43.
- 김민정(200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 김연숙·김지미(2011).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분석. **동남보건대학논문집**, 19(2): 163-172.
- 김종운·김지현(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 김지현·도현심·신나나·김민정(2011).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의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2017-232.
- 김진영(2013). 대학 신입생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직업교육연구**, 32(6): 43-56.
- 김현철(2005). 대학생의 학업성취(Ⅱ): 학업성취도에 대한 새로운 예측변수의 탐색. **한국교육**, 32(2): 247-274.
-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안영·강영신(2003). **인간 이해 및 성장을 위한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해림·김희경·박승희·양지연·이우재·전지혜 외(2015). 군복무 후 복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혼합적 연구: 학업, 대인관계, 진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621-642.
- 류윤석(2012). 전문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 문제연구**, 42: 245-263.
-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원우·김미숙·정상명·허규만(2007). 동일방법편의의 원인과 해결방안. **인사·조직연구**, 15(1): 89-133.
- 박현숙·정경순(2013). 간호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4): 549-557.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영수(2011). 기업 내 셀프리더십 필요역량 탐색. **HRD연구**, 13(3): 51-74.
- 송정수·양필석(2008). 셀프리더십과 혁신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관한연구. **기업경영**

- 연구, 15(1): 189-209.
- 송진열(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2): 335-345.
- 신현대·이정기(2008). 세무학 전공자의 학교환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51: 199-219.
- 신혜숙·최정윤(2013). 학자금 지원이 대학 신입생의 학업성취와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4(3): 129-154.
- 양수진·송영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2): 443-470.
- 양수진·신다혜·송영수(2015). 대학생 셀프리더십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H 대 대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HRD 연구**, 17(2): 241-266.
- 옥경희(2001).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 **학생생활연구**, 8: 21-39.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경훈(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 위유라·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이경림·박재국(2007).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9(1): 289-308.
- 이경화·유경훈·김은경(2013). 대학신입생의 부모관여,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4(3): 183-201.
- 이수진(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이숙경(2011).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2): 235-253.
- 이영희·이영미·김동기(2009). 치과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6(1): 179-196.
- 이유정·정기수(2018).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수준과 대학생활 만족도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 391-410.
- 이정선·김경아(2012).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6(2): 19-39.
- 이지은(2015). 대학생의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4): 2163-2178.
- 전소연(2010).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상태, 대학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1(1): 93-115.

- 정선영·김진영(2012). 예비유아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해결기술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12(3): 457-477.
- 정은이·박용환(2009).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21(2): 69-92.
- 정은이(2010).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장애, 진로포부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3(4): 75-91.
- 정은이(2013).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및 셀프리더십과 전공 몰입의 관계에 대한 진로적응의 매개 효과. **교육문제연구**, 161-187.
- 정태희(2005). 셀프 리더십 교육이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지**, 32(1): 223-248.
- 조현재(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대학생활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63-80.
- 최석봉·임명서(2011).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학업만족도 및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27-46.
- 최석봉·임명서(2012). 대학생의 학업만족과 학습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셀프리더십과 교수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뢰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연구**, 14(3): 65-84.
- 최인선·주은지(2016).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45-173.
- 최임숙(2007). 대학생의 학교적응 행동, 학업성취도와 성역할 정체감 및 학습양식의 관계. **인문학연구**, 34(2): 547-573.
-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한동협·김희순·장성화(2018). 대학생의 우울, 특성불안, 사회적 지지, 성인애착이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73-88.
- 허갑수·변상우(2012). 셀프리더십이 목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정보교육학회 경영교육저널**, 31(1): 23-44.
- Bagozzi, R. P., & Yi, Y.(2012). Specification,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1): 8-34.
- Bannan, D. A.(2004). *Leadership development as a transformational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Bandura, A.(1987). *The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London: Prentice Hall.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Dong, X., & Simon, M. A.(2010). Gender variations in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risk of elder mistreatment in a Chinese community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9(6): 720-739.

- Erickson, E. H.(1969).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eiman T.(2007). Social support networks, stress,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uccess of university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9(4): 461-478.
-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200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Articles*: 2.
- Houghton, J. D., Bonham, T. W., Neck, C. P., & Singh, K.(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personal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9(4): 427-441.
- Kerr, S., & Jermier, M.(1978). Substitutes for leadership: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2(3): 375-403.
- Kline, R. B.(2010). 구조방정식 모형-원리와 적용(이현숙·김수진·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원저 2004 출판)
- Manz, C. C., & Sims, H. P.(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Manz, C. C., & Neck, C. P.(1998).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London: Prentice Hall
- Phan, H. P.(2012). Relations between informational source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 developmental approach. *Educational psychology*, 32(1): 81-105.
- Preacher, K. J., & Hayes, A. F.(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obinson, J. J.(2005). *Individual learning style and their relationship to leadership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 Schaffer, L. F.(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pencer, M. B.(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57.
- Tinto, V.(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o Press.

## ABSTRACT

###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Impacting on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S University

Lee, Eun-jung\* · Song, Young-soo\*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factors helping university students successfully adapt to campus life and achieve academic accomplishment through a critical period in person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verifying influence of self leadership as an individual trait variable and social support as a socio environmental trait variable on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mong them was conducted. Total 271 responses collected by implementing a questionnaire survey in “S”, a four-year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was examined through structural model equation, bootstrap and sobel test.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onfirmed the causal relationship of self 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impacting on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is result suggests that an integrated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both individual and socio environmental factors is necessary to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Second, it was proved that self 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indirectly influences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school adjustment. This demonstrates that school adjustment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plays a major role in mediating among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veys its significance in suggesting the necessity to provide insitutional support on individual trait and socio environmental factor enabling university students successfully to adapt to campus life and achieve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논문접수일 : 2018년 11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 2018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26일